

四象醫學에서 본 四柱運氣 體質의 問題點에 對한 研究

金赫東* 金達來*

서 론

東武 李濟馬 先生이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시어 四象醫學이 誕生한지 100 餘年이 흐른 지금 四象體質論은 漢醫師들의 關心事에서 이젠 一般人들에게까지 그 關心의 幅이 넓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現狀이 나타난 理由로서는 첫째, 東洋思想과 漢醫學에 대한 一般의 認識이 提高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四象醫學이 一般사람들에게 健康法으로 活用될 수 있는 特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¹⁾

그러나 近來에 四象醫學(四象體質論)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면서 逆機能으로 四象醫學에 대한 誤解도 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運氣와 四柱를 利用하여 體質을 보고자 하는 方法인 것이다. 대체로 이와 같은 方法論을 利用하는 이들은 明代醫家인 李梴이 그의 著 “醫學入門”의 先天圖說에서 “學易以後에 可以言醫”라 한 글귀를 援引하여 周易의 要約精神을 象數易으로 利用하여 이를 醫學의 體質論과 接木하여 所謂 四柱運氣體質이란 것을 만들어 體質을 判斷한다고 한다. 그들은 體質을 四柱八字, 生年月日에다 接合시켜서 무슨 날 무슨 時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體質이라고 붙여서 四象을 說明하려고 하며, 또한 五運六氣를 따져 生年月日로 體質을 보려고도 한

다. 그들은 四柱八字의 關係는 自然의 靈的인 氣運을 바탕을 두는 것이어서 宿命的인 運命이 누구에게나 賦與된다고 하며, 또 受胎日이나 出生日을 따져서 體質 鑑別을 하면 그날의 運氣에 따라서 그 사람의 臟腑의 虛實이 定해 진다고 主張한다.²⁾

그러나 몇 가지 研究와 實例로서 이와 같은 體質方法論에 問題가 있다고 여겨지니, 所謂四柱運氣體質의 根幹이 되는 四柱推命學의 起源과 發展에 대한 考察을 통하여 四柱推命學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接近의 方法을 생각해 보고, 아울러 四柱推命學에 基礎를 둔 四柱運氣體質의 非論理性을 살펴, 이는 四象醫學에서 提示한 體質의 本質을 毀損시키는 것임을 報告하는 바이다.

본 론

1. 體質이란?

體質이라 함은 各個人이 지니는 精神的 혹은 肉體의 特徵을 합하여 일컫는 말로 人間은 形態 뿐만 아니라 體內的 構造와 機能 또는 精神狀態까지 모두 나뉠대로의 特徵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差異는 個人이 지니게된 遺傳的인 差異에서 主로 起因된다

*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고 보며 또한發育하는 동안 지내온 環境이 같지 않은데서 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體質이란 先天的 遺傳因子와 後天的 環境要素에 의하여 形成된 個個人이 지니는 類型的 特徵인 것이다.³⁾ 이와 같은 類型的 特徵에 대하여 東, 西洋을 莫論하고 꾸준한 研究와 歷史性이 있으니 이에 대해 우선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1) 東洋醫學에서의 體質論

紀元前 3世紀 경에 完成된 것으로 推定되는 漢醫學의 原典 〈黃帝內經〉의 ‘通天編’에는 東洋哲學의 基本原理라 할 수 있는 五行에 立脚하여 人間의 體質을 크게 太陽之人, 少陰之人, 陰陽和平之人, 少陽之人, 太陰之人의 다섯 가지로 區分하고 있다.

또한 ‘陰陽25人編’에는 五行을 바탕으로 크게 木形之人,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의 다섯으로 나누고 이를 細分하여 25가지의 體質로 分類한 內容이 있다. 그러나 이들 理論은 단지 人體類型을 外貌와 行動의 特徵만을 위주로 區分하는데 그치고 있어 體質의 醫學에서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다. 明나라의 張介賓은 사람에게는 陽臟之人과 陰臟之人이 있는데 陽臟之人은 陽이 많고 陰이 적은 體質이고, 陰臟之人은 陰이 많고 陽이 적은 體質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藥物을 投與하는데 利容하였다.⁴⁾

2) 西洋에서의 體質論

피타고라스 學派에 속한 醫師였던 크로톤의 알크메론(alcmaeon of croton)의 健康論, 즉 寒(cold), 熱(hot), 燥(dry), 濕(wet)이라는 對立的 힘 사이의 均衡에 의하여 健康을 說明하는 方式을 形而上學的으로 發展시킨 것이 히포크라테스(BC 460-BC 377)의 4體液說로 發展되었으며⁵⁾, 이를 바탕으로 A. D. 2世紀頃 갈렌이 多血質, 淡汁質, 黑淡汁質, 粘液質의 네 가지로 分類되는 類型體質論을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理論은 贊反의 醫學的 論爭을 거듭하면서 별다른 進展을 보이지 못하였고,

20世紀 初에 이르러 獨逸의 크레치메르(kretschmer)가 精神 體質醫學的 觀點에서 人間을 肥滿型, 消化型, 筋肉型, 腦型의 4 體質을 設定하고 이들 간의 關係를 精神學的 側面을 中心으로 研究하였다. 시가우드(sigaud)는 呼吸型, 消化型, 筋肉型, 腦型의 4 體質을 分類하였고, 哲學者인 칸트(kant)는 氣質에 대한 研究에서 感性的 體質과 活性的 體質로 分類하였는데 感性的 體質은 多血質, 憂鬱質에 屬하며, 活性的 體質은 淡汁質, 粘液質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狂信型(earysom), 峽長型(leptosom), 肥滿型(pyknisch), 등으로 분류한 日本의 大理, 血液型에 따른 氣質의 特性을 研究한 古川の 理論 등이 있고, 1940년 셸던(sheldon)은 사람의 體質은 發生學的으로 各 胚葉에 聯關된 機能과 發達 與否에 따라 體質이 구분된다는 胚葉起源說을 主張하였다. 그리고 1963년 겔(gel)과 쿠부스(coobus)에 의한 알려진 4형은 體液性 혹은 細胞性 因자의 差異와 反應의 時間的 經過에 基礎하여 分類하고 있다.

이를 볼 때 西洋醫學상 體質 理論은 以上에 列擧한 이외에도 몇몇 學者들의 研究가 있으나 대부분 古代에는 宇宙要素에 따른 分類를 追究하였고, 發展過程에서 解剖組織學的, 心身醫學的, 免疫學的 觀點 등으로 多樣한 提示를 보이고 있으나 實質的으로 疾病을 管理하는 臨床에 있어서는 精神醫學的 또는 心理學的 側面과 一部の 免疫學的 分野에서 有用되고 있는 정도이다.⁶⁾

3) 李濟馬의 四象醫學에서의 體質論

四象醫學은 東武 李濟馬 先生이 19世紀 末境 古의 著 ‘東醫壽世保元’과 ‘格致藁’를 써서 人間의 體質의 類型을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으로 區分하고 各 體質의 生理와 病理, 治療, 그리고 養生을 研究함으로써 만들어낸 새롭고 獨創的인 體質 醫學이다.

既存의 醫學이 黃帝內經과 周易을 中心으로 한 黃

老學派의 系統을 잇고 있는데 비해 四象醫學은 實學의 擡頭로 發展하기 始作한 改新儒學에 土臺를 둔 人間 中心의 哲學家이자 醫學이다. 그는 體質을 分流할 때 사람의 어느 一部分만을 觀察하는데 그치지 않고, 人間의 精神과 肉體, 言行과 性格, 體型 등에 이르기까지 心身 兩面에 있어서 多角度로 研究하여, 單純한 醫學을 뛰어넘어 하나의 人間學으로 完成하였다.⁷⁾ 漢方醫學에는 證治療法과 體質治療法이라는 두 가지 治療方法이 있다. 1894년 李濟馬가 四象體質 理論을 提示하기 以前에는 大部分 證治療法이 主宗을 이루어왔고, 體質이란 概念은 어렵 못하고 모호한 狀態로 學論되는 정도였다.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四象人을 定하고 이들의 生理, 病理, 治療, 藥理의 特徵을 說明함으로써 비로소 體質醫學은 本格的으로 發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證治醫學은 人間을 受動的인 位置에 놓아 人間은 周圍環境에 影響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點이 重視되는데 비해, 그 人間이 갖는 特性이 輕視된다. 이에 비해 四象醫學은 人間이란 자기 스스로 自律적으로 자신의 몸을 조절할 수 있는 存在인데 個個人의 心身이 가지고 있는 特性에 따라 병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아, 一次的인 것을 人間 자신에게 둔다. 이와 같은 點이 四象醫學의 特徵인 것이다.⁸⁾

2. 四柱(推命學, 算命學)이란?

1) 四柱 推命學의 起源과 發展

그 옛날 人類의 生産力이 제대로 發達하지 못하였고 認識의 水準도 매우 낮을 때 自然에서 일어나는 神秘的 現狀과 살아가면서 겪는 苦難과 幸運 그리고 자신의 運命의 길고 짧음에 대해 제대로 解析할 方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 가슴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 始作하였으니 저 하늘에는 우리가 拒否할 수 없는 神秘的 힘 있어서 그것이 世上의 모든 事物들을 支配하고 人間의 모든 思想까지도 支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⁹⁾

이러한 생각은 古代國家가 形成되고 文字가 發明된 뒤 '天'으로 表示되는 저 하늘이 사람의 運命을 決定한다는 天命觀으로 發展되었으니 이것을 運命論이라고 한다.

天命論은 先進學者들의 일대 鼓吹를 통해 위로는 支配段階에서부터 아래로는 一般 平民들에 이르기까지 命을 信奉하는 霧圍氣가 一時에 매우 盛行하였다. 일찍이 殷나라 時代에 迷信을 떠받드는 通治者들은 이미 매번 어떤 일을 遂行할 적마다 먼저 하늘의 뜻이 어떠한가, 吉한가 凶한가를 먼저 占쳐보았다. 뒤에 人間과 自然이 相應한다는 概念의 影響으로 사람들은 더더욱 普遍的으로 모든 天下萬物의 運命과 人間의 運命은 모두 天時 또는 星象과 關係가 있다고 認識하였다.¹⁰⁾

사람들의 豫測術에 대한 要求와 興味가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커지면서, 이런 原始的인 占卜이나 占星術은 이미 사람들의 一生의 吉凶禍福과 富貴 壽夭를 豫測해 보려는 크나큰 要求를 充足시키기에는 너무나 不足하였다. 이런 背景에서 사람들의 一生 동안 걸어갈 길을 能히 豫測할 수 있고 또 過去와 未來의 世界를 網羅할 수 있음을 標榜하는 算命術이 그 霧圍氣를 타고 登場하였다. 이와같은 歷史的 必然性을 가지고 태어난 算命學의 理論的 根據는 陰陽五行學說이었으니 先秦兩漢 時代 이래 哲學家들은 天地間의 모든 事物의 發生, 發展 그리고 變化는 모두 陰陽의 對立과 均衡이고 木, 火, 土, 金, 水 五行의 相生과 相剋 作用에 의한 結果로 보았고, 天地間의 萬物의 發生과 發展 그리고 그 變化가 陰陽五行과 關聯이 있다면 하나의 小宇宙인 사람도 그가 타고난 運命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그 一生의 發展過程을 豫測할 수 있다고 보았다.¹¹⁾

算命術 起源의 分명한 時點을 따지고 보면 대개 兩漢에서 始作된 것으로 보며, 文字上에 反映된 것으로는 주로 白虎通意와 王充의 論衡 등의 著作 속에 들어 있다. 王充은 "사람이 命을 받음은 부모가

生命을 붙여넣어 줄 때 이미吉凶이 決定된다”는 命學思想을 더욱 具體적으로 펼치니 이런 學說은 孕胎된 날을 推算하여 吉凶을 論하는 ‘胎元法’에 基礎的理論根據를 提供하였고 後代 四柱學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後 東漢 이후 魏晉南北朝 時代를 거쳐 晉나라 葛洪의 ‘抱朴子內篇’ 辨文에서 引用한 ‘玉劍經’에 따르면, 사람들이 一生 동안 살아가면서 만나는 吉凶이 父母가 妊娠하자마자 決定되는 原因은 그날 만나는 하늘의 별자리와 關係가 있다고 하였다.

그後 後魏의 손소가 緣命을 推算하고 陶弘景이 ‘三命抄略’을 쓴 以後에도 算命의 方法은 매우 粗雜하고 單純하였다. 그러나 三國 魏晉 南北朝 時代의 算命家들의 共同摸索을 거쳐 唐나라에 이르러 일대 發展이 있고 質的 飛躍이 일어나니 그 原因은 陰陽五行과 한 사람의 出生年, 月, 日, 時를 좀더 緊密히 結合하여 一生의 좋고 나쁨을 推斷하는 學說이 唐나라 時代에 方法上의 確認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東西文化의 交流로 印度와 西域의 占星術이 連이어 들어와 算命術의 發展을 促進시켰다. 唐나라에서 算命術이 급속히 發展하고 正式的으로 體系를 確立하는 過程에서 核心的인 사람은 李虛中, 一行스님, 桑道茂 등이다. 그 중 李虛中은 평소 陰陽五行을 精密히 研究하여 한 사람의 出生年, 月, 日의 天下地支를 가지고 一生의 吉凶禍福, 貧賤壽夭를 잘 推定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李虛中의 方法은 吳代末 宋草의 人物인 徐子平에 와서 한걸음 더 發展하였으니 徐子平은 年, 月, 日을 推算하는 方法을 더욱 發展시켜 年, 月, 日, 時를 同時에 따져보는 ‘四柱’의 方法을 만들었으니 徐子平 以後 算命術의 地位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方法上 徐子平이 創立한 ‘四柱法’은 宋代에서 비롯되어 天下에서 널리 流行하기 始作하였으니 그 당시에는 算命하는 일은 命理家들이 아니라 儒學에 能通한 사람들이 擔當하였으며 그들 大多數가 命理에 通達하였다.

宋을 거쳐 元나라 時期에는 命理學의 큰 發展을 보지 못하다가 明나라에 들어와 算明術의 流行은 最高潮에 달하였고, 明初의 重臣 俞己의 손에서 나온 ‘滴天髓原注’가 有名하며 萬育吾의 ‘三命會通’이 또한 有名하다. 清代에 이르러서는 ‘窮通寶鑑’ 등이 有名하다.¹¹⁾

2) 四柱推命學의 構造的 矛盾과 올바른 理解論

1)에서 四柱推命學의 起源과 發展에 대해 大略的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通해 볼때 四柱推命學은 하나의 定해진 틀에 의한 絕對眞理의 體系가 아닌 時間의 흐름 속에서 人間의 認識體系가 眞理라는 外투를 歷史的 社會的으로 서서히 걸치면서 發展된 것임을 보았다. 즉 四柱推命學은 一種의 時代的 文化現狀으로 數千年 間의 歷史의 긴 흐름 속에서 수많은 人爲的 要素와 支配階級의 意圖的인 封建道德倫理觀이 反映되었으며, 무수한 命理家들의 各者의 主觀的인 見解까지 뒤섞여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四柱推命學은 어쩔 수 없는 그 나름대로의 限界를 가지고 있으니 첫째, 四柱推命學은 節氣를 基準으로 하는데 節氣라 함은 經度와 緯度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나 空間的 與件을 考慮하지 않고 時間性만을 가지고 論했으며 둘째, 四柱推命學에선 干支를 가지고 年月日時를 기록해 나가는 干支紀法을 使用하는데 干支紀法은 太陽曆과 太陰曆을 混合해 쓰므로 基準上의 問題가 있으며, 過去 中國의 各 王朝의 서울을 基準으로 하는 節氣는 서로 같을 수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考慮가 없음이다.¹²⁾

四柱推命學이 가지고 있는 이와같은 矛盾에 대해 宋나라 費袞은 費袞과 莊練의 말을 이용하여 四柱推命學을 어떻게 볼것인가의 對答을 대신한다. 費袞은 “梁溪漫志”에서 “만약 사람들이 태어난 時間이 같지 않으려면 어떤 한 時辰에는 한 사람만 태어나야 되니 하루에 열두 명의 사람만이 있다. 한 해로 따지면 4千3百28가지 類型의 사람이 있게 된다. 하나의 60甲子로 따져 봐야 경우 25萬9千2百가지 類型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제 하나의 큰 도시라고 해도 그 戶口數가 數十萬이 되는데 하물며 天下의 全體를 본다면 王公 大人에서 一般 庶民에 이르기까지 어찌 數十 億이 되지 않겠는가? 비록 數理에 밝은 사람이라 해도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고 태어난 時間과 같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 王公 大人이 태어났을 때 一般 庶民 가운데에서도 같은 時間에 태어난 사람이 반드시 있을텐데 어찌 富貴貧賤이 서로 다른가?" 라고 하였으며, 宋나라의 莊綽은 "鷄肋編" 卷上에서 "四柱推命學은 깊이 빠질 만한 것이 못되고 오직 자신을 바르게 하고 道를 닦아 나가는 것만이 依支할 만하다"고 하였다.¹³⁾

3. 運氣學說이란?

東洋醫學에서 일컫는 運氣學說은 自然界의 天時氣候의 變化 및 天時氣候의 變化가 宇宙의 萬物 특히 人體에 미치는 影響을 解析하는 古代의 論理方法이며, 陰陽五行을 核心으로 하고, 天人相應이라는 全體概念의 基盤위에 豎立된 理論이다. 運氣을 東洋醫學에 適用하게 된 것은 古人이 人間과 自然界 사이의 關係가 매우 密接하여, 人間の 모든 生活이 반드시 自然의 變化와 서로 適應되는 것으로 認識하였기 때문이다. 고로 古人은 恒常 人體와 自然의 萬物을 比較해서 論하였다.

運氣學說의 內容은 天, 人, 地의 三者의 結合을 論述한 것으로 醫學에서 運氣學說을 研究하는 것은 主로 天時, 氣候의 變化規律을 把握하여, 그것으로 六淫外感에 屬하는 疾患을 誘發하는 要因을 研究하기 위한 目的이며, 同時에 每年 또는 各 季節의 氣候變化와 發病狀況을 觀察하여, 診斷과 治療의 參考로 삼기 爲함이다. 그 理論의 核心을 理解하기 爲해선 陰陽五行設의 相生 相剋의 原理를 把握해야 하며 그 代表符號인 十干, 十二支에 對한 運用方法을 알아야 한다.

運氣學에선 五運의 變化든 六氣의 變化든 모두 人體의 疾病을 惹起시킬 수 있다고 보며, 但 氣候變化

와 疾病의 關係에서 考察하면, 그 基本規律은 一致하며, 이는 所謂 人身小天地의 思想에 根據한 理論인 것이다. 요컨데 疾病의 다른 屬性 및 사람의 體質의 差異에서 發病하는 臟器 및 그 症狀에는 각기 差異가 있는 것이다. 예컨데 丁壬年은 共히 木運에 屬해 있다. 丁은 木運 不足이고 壬은 木運太過이다. 木이 不足하면 燥氣가 流行하고, 木이 太過하면 風氣가 流行한다. 이로 因해 人體의 發病에 影響을 미치는 性質도 不同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運氣學說은 氣候變化와 人間發病의 關係에 資料를 提供하여 臨床의 辨證을 把握하게 하고 辨證의 正確한 體系에서 辨證結果에 合致시켜 正確한 方法으로 處方을 構成하게 하며 이를 통해 疾病을 治療케 하는 疾病治療의 한 方法인 것이다.¹⁴⁾

4. 운기체질이린?

所謂 運氣體質에선 本론3에서 서술된 運氣學의 基礎위에서 內經과 東醫寶鑑의 一部內容을 引用하여 人間은 入胎될 때부터 어느 程度 體質의 소인이 定하여 지고 母體에서 成長 發育하여 出生까지의 週期에 따라서 또한 出生素質의 소인이 定해진다고 본다. 前者를 入胎體質이라 하고 後者를 出生體質이라 하여 이러한 入胎와 出生에 關係되는 體質을 決定하는 要因으로는 出生 年, 月, 日을 運氣에 의하여 出生 때의 體質을 알아내고 一定한 原理에 의해 演繹하여 入胎時의 體質을 알아내 이와 같은 出生體質과 入胎體質을 合하여 運氣體質이라 한다. 이와 같은 運氣體質에 對한 研究는 中國보다 우리 韓國에서 활발한 듯하며, 그 代表的 著書는 朝鮮朝 英朝 때의 尹美 先生이 저술하였다는 '草窓訣'로 이는 運氣體質論者들의 經書가 되고 있는 것이다.¹⁵⁾

運氣體質論者를 主張하는 이들은 그 方法上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代表的 方法論의 하나를 보자면 위에서도 말한 소위 入胎體質과 出生體質로서 患者를 보는 法이 있다. 그 具體的인 例를 살펴보고, 本人이 調査한 實際 出生한 날과 受胎된

날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이론의 虛構性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運氣體質의 實際的 運用例

: 體質 求하는 方法

人間的 出生 年月日로서 出生 當時의 體質의 所因을 把握하여 入胎當時의 體質을 演繹推算하는 方法으로 이를 求하기 위해서는

- (1) 出生時의 主運 主氣 및 客運 客氣
- (2) 入胎時의 主運 主氣 및 客運 客氣 를 求한다.

예) 1985年 8月 15日 午時生의 運氣體質(乙丑年 丙戌日 午時生)

(1) 出生日 主運主氣 : 土運 土氣 土土 臟腑體質
客運客氣 : 木運 火氣 木火 臟腑體質

: 乙丑年이므로 不及之年(陽氣 不及之年:臟腑不及)

**入胎日의 計算

出生日로부터 略 10個月 以前으로 거슬러가서 天干의 合, 地支의 合이 되는 日辰을 찾는다. 위의 例로 보자면 1985年 8月 15日 午時生이므로 乙丑年 丙戌日 午時生이다. 生日辰은 丙戌이므로 아래(圖表 1)에 의하여 丙戌日生은 296日이라 했으므로 略 100個月全 辛卯日을 찾아보면 1984年(甲子年) 10月 24日 未時(包胎時도 生時의 地支六合으로 定한다.)가 入胎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入胎日의 主運主氣는 金運 金氣, 客運客氣는 木運 火氣가 된다.

(2) 入胎日

入胎日 主運主氣 : 金運 金氣 金金 臟腑體質
客運客氣 : 木運 火氣 木火 臟腑體質

: 甲子年이므로 太過之年(陽氣 太過之年 : 臟腑太過)

(도표 1) 胞胎 : 生日의 日辰으로서 固定

子午日 生 : 276日

丑未日 生 : 266日

寅申日 生 : 256日

卯酉日 生 : 306日, 246日

辰戌日 生 : 296日

巳亥日 生 : 286日

干合 : 甲己合化土, 乙庚合化金, 丙辛合化木, 丁壬合化木, 戊癸合化火

地合 : 子丑合土, 寅亥合木, 卯戌合火, 辰酉合金, 巳申合水, 午未合太陽太陰

運氣體質에서는 이와 같은 方法으로서 出生日과 入胎日의 運氣體質을 求하여 臟腑의 虛實을 判斷하니 위의 例로서 말할 것 같으면 土土라는 主運主氣(出生)과 金金이라는 主運主氣(入胎)를 바탕으로 하여 木火라는 外形的의 모습(出生 客運客氣)을 하여 木火라는 性과 質을(入胎 客運客氣) 가지고 태어난 體質로 보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運氣體質은 木火土金水의 다섯 體質로 나누어지고 다시 그 각기를 細分化하여 分類하면 50部類로 나눌 수 있으니,

木木(木火, 木土, 木金, 木水)臟腑 太過(不及)의 열가지

火木(火火, 火土, 火金, 火水)臟腑 太過(不及)의 열가지

土木(土火, 土金, 土土, 土水)臟腑 太過(不及)의 열가지

金木(金火, 金金, 金金, 金水)臟腑 太過(不及)의 열가지

水木(水火, 水土, 水金, 水水)臟腑 太過(不及)의 열가지로 分類되며, 이는 결국

가, 同五行의 木木, 火火, 金金, 水水の 太過 不及의 10종류

나, 相剋으로서의 木土, 火金, 土水, 金木, 水火의 太過 不及의 20종류

다, 相生으로서의 木火, 火土, 土金, 金水, 水木의 太過 不及의 20종류가 된다.

이를 臟腑의 虛實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同五行인 경우 서로 同一한 關係이므로 相反

例) 土土臟腑 太過인 경우 表裏 關係에 의하여

: 臟인 脾 - 太過, 腑인 胃 - 不及 (脾實 胃虛)

2) 相剋인 경우 서로 剋하는 關係이므로 相同
例) 木土臟腑 太過

: 臟인 肝 - 太過, 腑인 胃 - 太過(肝實 胃實)

3) 相生인 경우 서로 生하는 關係이므로 相反
例) 木火臟腑 不及

: 臟인 肝 - 不及, 腑인 小腸 - 太過 (肝虛 小腸實)

이와같이 臟腑의 虛實이 區分된 後 이를 診斷에 利用하여 針灸治療와 漢藥物의 處方을 構成하는데 使用한다.

2) 理論上의 入胎日數와 實際 妊娠期間과 比較

四柱를 利用하여 入胎日을 算出하여 運氣體質을 구하는데 있어 核心이 되는 것은 (圖表 1)에 볼 수 있는 入胎日數에 다른 것이다. 入胎라 함은 妊娠이 됐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므로 妊娠에 대한 定意를 살펴보기로 한다.

現代醫學에 있어 妊娠成立에 關하여서는 여러 가지 說이 있으니 가, 精子和 卵子가 처음으로 接觸을 때 나, 精子和 卵子的 染色體가 結合했을 때 다, 受精卵이 最初의 細胞分裂을 始作했을 때 라, 受精卵이 子宮內膜에 着床했을 때 마, 胎兒의 心臟鼓動이 始作했을 때 등의 說이다. 그러나 大體的으로는 受精卵에 선 妊娠의 段階를 種子之道라 하여 一日擇地, 二日 養種, 三日乘時, 四日投虛라 하였으니 이는 排卵, 射精, 受精, 着床의 段階와 同一하다. 이를 통해 볼 때 入胎日이라 함은 大體的으로 受精과 着床 즉 乘時와 投虛의 段階로 볼 수 있다.¹⁷⁾

正常分娩의 경우에 있어서는 入胎일을 求한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產母의 記憶力에 依存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正確性을 기하기는 어렵다. 東洋學에 있어서는 現代科學의 도움으로 超音波 檢査方法을 통해 胎盤의 크기 및 두께 등을 測定하여 大略的인 入胎日을 求할 수 있으나 이 또한 誤差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正確한 入胎日을 알 수 있는 方法으로

는 人工受精의 方法이 가장 有用하다. 人工受精에는 크게 試驗管에서 受精을 시켜 產母의 子宮에 着床시키는 方法과 排卵日을 調查하여 精子를 집어넣어 體內에서 着床시키는 方法이 있으나 大體的으로 前者가 利用된다.

이 方法을 理容하면 正確한 入胎日을 알 수 있으며 이 方法을 통해 妊娠을 거쳐 出産한 新生兒 20名의 妊娠日數를 算出하여 運氣體質을 求하는데 使用되는 (圖表1)과의 差異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圖表 2)는 延世大學校 原州 基督病院 產婦人科 不妊클리닉의 協助를 얻어 作成된 것으로 이 圖表에서 理論上 日數와 實際日數를 比較해 보면 많은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實際日數가 두 項目으로 構成되어 있는 것은 試驗管 아이의 境遇는 體外受精을 통해 子宮에 着床된 경우이므로 正常的인 妊娠의 경우로 假定한다면 大略 2週日 정도의 기간을 考慮해야 하므로 이를 더한 項目이 괄호 안의 日數가 되는 것이다. 圖表2)를 보면 nsvd(正常分娩)보다 svd(促進製分娩)나 c/s(帝王切開)가 많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人工受精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多胎兒의 確率이 높으므로 產母의 負擔을 줄이기 위해 促進製分娩이나 帝王切開術이 많이 施行되기 때문이다.

或者는 이를 두고 人工的으로 造作된 入胎日과 帝王切開로 出生한 新生兒의 出生日을 가지고 (圖表1)과 比較함은 妥當치 않다고 할 지 모르나 四柱에 선 帝王切開로 出産한 것도 宿命으로 본다고 하니 이런 反論 또한 意味가 없다고 하겠다.

	胚芽移植日(受精日+2日)		出生日(陰曆)		理論上日數	實際日數	産出 類型	參 考
	入胎日(陰曆)							
1	92. 2. 11	己丑	92. 10. 20	甲午	276	246(260)		twin (f, m)
2	91. 4. 12	乙未	92. 1. 19	戊辰	296	274(288)	cpd c/s	f(3.9kg)
3	91. 4. 12	乙未	91. 1. 19	戊辰	296	274(288)	nsvd	f(3.6kg)
4	91. 4. 20	癸卯	92. 1. 23	壬申	256	269(283)	cpd c/s	f(3.5kg)
5	91. 8. 21	辛丑	92. 3. 30	戊寅	256	211(225)	triple c/s	m(1.541, 1.90) f(1.73kg)
6	91. 10. 24	癸卯	92. 5. 8	乙卯	306, 246	245(259)	svd	twin
7	92. 4. 7	乙酉	92. 12. 21	甲午	276	250(264)	p. p c/s	f(2.7kg)
8	92. 5. 11	戊午	93. 1. 13	丙辰	296	230(244)	twin c/s	m(2.93, 2.2kg)
9	92. 5. 24	辛未	93. 1. 27	庚午	276	240(254)	cpd c/s	m(3.5kg)
10	92. 6. 1	丁丑	93. 3. 6	戊申	256	272(286)	c/s	f(2.6kg)
11	92. 7. 19	丙子	93. 4. 1	壬寅	256	281(295)	c/s	m(265, 2.75kg)
12	92. 8. 4	己卯	93. 3. 12	甲申	256	243(257)	nsvd	m(3.6kg)
13	92. 8. 9	甲申	93. 4. 8	己酉	306, 246	245(259)	fd c/s	m(2.6kg)
14	92. 8. 15	庚寅	93. 3. 12	癸巳	286	235(249)	nsvd	m(3.6kg)
15	92. 8. 17	壬辰	93. 4. 17	戊午	276	289(293)	triple c/s	m(1.58kg) f(1.7, 1.1kg)
16	92. 11. 1	甲辰	93. 5. 12	癸未	266	220(234)	nsvd	f(3.9kg)
17	92. 11. 23	丙寅	93. 7. 23	癸巳	286	267(281)	nsvd	f(3.7kg)
18	93. 2. 23	乙未	93. 9. 29	丁酉	306, 246	238(252)	cpdc/s	f(3.0kg)
19	95. 5. 27	甲戌	93. 2. 20	乙丑	266	239(253)	nsvd	m(3.9kg)
20	92. 7. 19	乙丑	93. 3. 23	乙丑	266	243(257)	svd	m(3.8kg)

(圖表 2)

*cpd : 아두골반불균형 *nsvd : 정상분만

*svd : 촉진제 분만 *rp : 두번째 분만

결 론

1. 四柱推命學은 生命의 神秘를 數理法則이라는 操作的 概念을 通해 論理的으로 把握하려 하나 이는 人間의 傲慢에 지나지 않으며, 四柱推命學은 하나의 文化現狀으로 理解해야지 이를 醫學에 接木시켜 恣意的으로 解析하는 것은 잘못이다.

2. 四柱推命學의 바탕이 되는 天干地支는 時空間性과 歷史性的의 基準點을 喪失하였고 따라서 이를 利用하여 人間의 體質을 判斷한다는 運氣體質 또한 李濟馬 先生으로부터 嚆矢된 體質醫學의 이름을 盜用한 疑科學 또는 疑醫學의 範疇에 들 뿐이다.

3. 運氣體質에 있어 所謂 先天體質이라고 하는 入胎體質의 産出은 重要하며 이를 算出하는데 使用되는 入胎日數에 대해 實際 調査를 통해 볼 때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이를 利用하여 入胎體質을 求하는 것 또한 잘못임을 알 수 있었다.

4. 受胎日이나 出生日에 의해 體質이 決定된다는 運氣論的 方法은 體質이 父母로부터 遺傳된다는 하나의 因子에 대한 考慮가 없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5. 漢醫學의 發展을 위해서는 多樣한 思考와 方法論이 存在해야 하며 이를 深化시키는 것은 現代를 살아가는 우리 漢醫學徒의 實踐的 課題이다. 그러나 漢醫學이 科學(또는 醫學)으로서의 窮極的 義務인 常識을 拒否하여 疑科學(疑醫學)의 分野에 沒頭한다면 이는 不知不識間에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誤謬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참고문헌

- 1 宋一炳 : 알기쉬운 한의학, 하나미디어, 1993, p22
- 2 前掲書 : p145
- 3 高炳熙 : 체질과 사상변증, 월간 한방계, 1992, p36
- 4 前掲書 : p36
- 5 金谷沃 : 음양오행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계간 과학사상, 범양사, 1993, p15
- 6 高炳熙 : 전계서 p37
- 7 宋一炳 : 전계서 p124
- 8 前掲書, p127
- 9 洪丞謨, 姜玉珍 지음, 문재곤 옮김, 時의 哲學, 예문지, 1992, p33
- 10 前掲書 p39
- 11 前掲書 p40-p52
- 12 前掲書 p17
- 13 前掲書 p24
- 14 金完熙 외 : 漢醫學原論, 成輔社, 1983, p47. 47
- 15 유태우 : 運氣體質早見集, 陰陽脈診出版社, 1991, p437
- 16 宣在光외 : 杏林際, 論文集, 運氣體質과 四象體質比較研究, 1985, p41
- 17 宋炳基 : 漢方婦人科學, 杏林出版社, 1993, p50